

— EIAK 소식 —

제86차 이사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15일 무역센터에서 제8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상원 본회 상근부회장 등 임원이 참석하였는데 의결사항으로 인사관리 규정 중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94 상반기 주요 업무 등을 보고했다.

주요 업무 보고에는 최근 경기 동향과 외화 표시 원화대출 자금 추가 조성 건의 등 12건과 대일 민간합동 투자유치단 참가 등 5건, 업계 공동사업으로 국제 공통 형명등록센터(WTDS) 설치 추진 등 14건.

본회 자체사업인 전자정보서비스(EIAK-Network) 시행 등 3건을 보고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산업연구원 차동세 원장을 초청 뉴라운드에 대한 전망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었는데 UR 타결 이후 GR, TR, BR, CR 등이 대두됨에 따라 뉴라운드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 이슈중심으로 설명이 있었다.



'94 전자산업 하반기 경기동향 및 전망조사

본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산업의 하반기 경기동향 및 투자전망에 의하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및 엔고로 인한 수출 경쟁력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로 연간 수출이 작년 7.5%에서 금년에는 24.6%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도 반도체, LCD 등의 신규투자와 자동화 시설투자가 주도해 작년보다 47.6%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전자산업의 하반기 경기는 전체의 81%가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상반기보다도 더욱 호전될 전망이다. 경기호전의 요인은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회복이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확대가 21%, 신제품 및 품질 고급화에 대한 노력이 18%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수출은 작년의 7.5% 증가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22.5% 연말까지는 24.6%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동안 호조를 보여 온 반도체, PCB 등의 전자부품과 VTR, 전자렌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과 FAX, 휴대용 무선전화기 등의 통신기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그동안 부진했던 음향기기 및 모니터, 부품들이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내수도 작년의 15.2%보다 높은 19.7%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냉장고, 세탁기, C-TV 등의 가정용기기가 신상품 개발 등 품질 고급화의 노력으로 호조가 지속되고 컴퓨터 보급 확대에 따른 PC 및 프린터, 모니터 등 주변

기기와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고기능화에 따른 반도체, 세트수요 증가로 인한 PCB 등 부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휴대폰, 카폰 등 일반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설투자는 작년보다도 무려 47.6%가 증가한 약 6조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엔고로 인한 수출 확대와 내수경기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LCD, CPT 등 전자부품 업계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진행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칼라모니터 등의 증설투자 그리고 원가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동화 설비 및 정보화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어디까지나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서 상당부분이 기업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실현해서 우리 전자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 확대,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촉진과 투자의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공업발전기금 등 정책개발 자금지원의 확대 및 금리 인하와 부품 소재의 수입대체 국산화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7 Page 참조)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관련 국제 특허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28일 섬유회관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와 소프트웨어의 특허 보호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 유수의 특허전문 법률사무소인 Finnegan Henderson 법률사무소의 Geybrick, Taylor, Yoches 변호사와 신신탐동법률사무소의 선우찬호 특허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국

제특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세미나는 "멀티미디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보호에 관한 미국 특허법의 추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특허 보호에 관한 최근의 미국 판례, 미국 특허 절차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법안 등에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다.

동세미나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전자, 자동차, S/W 등 관련기업의 특허담당 요원과 국내 변리사, 특허청의 심사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형 CATV 시스템 성능시험회 개최

본회의 CATV기기산업협회(회장 : 배석채)는 지난 6월 23일 전자부품(연)에서 종합유선방송을 눈앞에 두고 '92년부터 상공자원부와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해 온 한국형 CATV시스템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00여명을 초청해 공개적으로 성능시험 테스트를 실시했다.

한국형 CATV시스템은 가입자관리시스템(금성알프스전자 등 13개사)과 망감시시스템(대성전자 등 16개사) 그리고 동축전송 증폭기(동양텔레콤 등 12개사)으로 구성되어 '92년 10월부터 총 41개사에 23억원의 개발비를 투

입해 '93년말에 개발을 완료하였는 바, 동협회는 이번에 실수요자에게 그 성능을 직접보여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동협회는 이번에 공개성능 시험과 함께 실수요자들로부터 특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컨버터를 비롯한 가입자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삼성전기 등 6개 생산업체 관계자를 현장에 배치시켜 수급기업간 자유로운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협회는 그동안 업계공동으로 세차례에 걸쳐 CATV시스템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CATV방송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번 공개성능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어 7월에는 2단계로 시청자를 대상으로 수원시 권선구 지역에서 국산 CATV시스템으로 종합유선방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팩시밀리용 감열기록소자(TPH) 표준화 규격 설명회 개최

본회의 FAX산업분과위원회(위원장 : 우석형 신도리코 대표)에서는 지난 6월 29일, 본회의실에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팩시밀리 제조업체 구매 및 기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팩시밀리용 감열기록소자(Thermal Print Head) 표준화 규격 설명회를 개최했

다.

동설명회는 '93년 10월이후 8개월간에 걸쳐 삼성전자, 로움코리아 등 공급업체와 신도리코, 금성사, 대우통신 등 수요업체간 상호협약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화 규격을 발표함으로써 사용촉진을 유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수요업체에서는 연 200만불 이상의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FAX시장에 저가격을 무기로한 중국, 대만의 참여가 서서히 본격화 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부품에 대한 수급기업간 공동대응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

표준화된 주요 내용은 기계적 성능부분에 있어 전장길이 230.50mm, 열선길이 216.00mm, 롤러직경 MAX 14.00mm, 콘넥터 핀수를 9PIN과 10PIN으로 정하였고, 전기적 성능은 입력전압, 기록전압, 동작시 방열판 온도 등에 대해서는 최저 및 최대값을 규격화 함으로써 생산업체의 생산성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동위원회에서는 향후 팩시밀리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SMPS 등의 표준화 사업, 레이저 FAX의 기업간 공동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DI 반덤핑 및 원산지규정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20일 KOTRA 대회의실에

서 본회의 EU 통상변호사 Edwin Vermulst 를 초청 UR이후 EU 반덤핑 및 원산지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UR 타결에 따라 세계 각국이 무역 및 투자관련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하는 상황에서 대응키 위해 개최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 지역인 EU도 최근 반덤핑법의 개정 및 보완, 원산지 규정 시행의 강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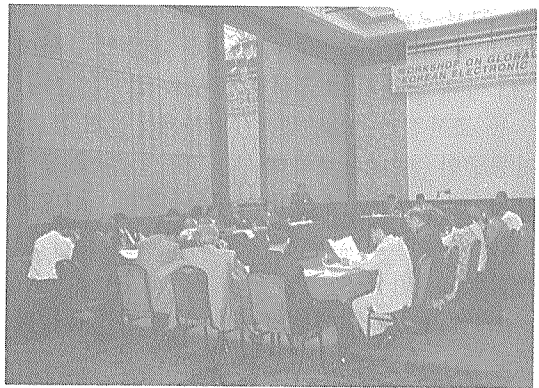
따라서 이날 세미나에서는 UR 타결로 인한 EU 반덤핑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향후 적용 방향을 비교 설명하고 EU 원산지 규정의 국제 경영 전략적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 특정지역 부품의 누적 적용, 역외 가공에 대한 관세 혜택, GSP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망과 시사점, 재무부 방영민 과장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토로라 최인학 부사장의 한국에서의 투자 사례 발표가 있었다.

한편 금성사 구미공장, 두산전자 구미공장 등을 방문 발전 현황 등의 설명도 들었다.

동위크샵 참가자들은 이번 계기로 한국전자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교류 내지 협력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표하기도 했다.



초고속 정보통신 산업발전 전담반 구성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상공자원부 정보진흥과 권용원 사무관, 쌍용컴퓨터(주) 안병덕 부장 등 20명이 참석, 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1세기 국가경쟁력 창출을 위해 세계 주요국의 중점 정책 과제가 되고 초고속 정보통신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의 기반구축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및 산업기술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는 한편 전담반 산하에 주요 내용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앞으로 동전담반을 구성하게 되면 초고속 정

한국전자산업과 국제화 방향 워크샵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16일, 17일 양일간 경주 힐튼 호텔에서 한국전자산업의 현황과 국제화 방향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프랑스 대사관 Jean-Jacques Guillaudeau 씨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산업연구원 박성택 실장이 21세기 한국전자산업의 국제화

보통신망의 건설과 관련산업 발전 및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강구하게 되며 동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93 국내 컴퓨터 보급 현황조사

본회는 국내 컴퓨터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및 사회의 정보화 사회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국내 H/W 생산 및 유통업체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93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결과 '93년말 현재(누계) 실제 보급, 가동중인 총 PC 보급대수는 '93년 한해 동안 보급된 129만 4,000천대를 포함, 408만 9,000천대가 보급되어, 전년대비 46.2%가 증가하였고, 인구 백명당 PC 보급대수는 '92년 6.4대에서 '93년에는 9.2대로 증가·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24 Page 참조)

'94 전자업계 자동화 실태조사

본회의 공장자동화추진협의회에서는 전자업체의 자동화 투자 촉진을 유도키 위한 일환으로, 전자산업 생산액 중 46%를 차지하는 주요 전자업체 97개사를 대상으로 자동화 추진실태 및 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업계의 자동화 추진시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 했다.

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93년에 전자업계의 자동화율은 평균 44%로 '92년보다 3%가 높아졌고, '94년도에는 6%가 향상된 50%의 자동화율이 전망되고 있고 투자비면에서도 200억원이 상승된 1,1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부품

산업과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 산업용전자기기의 경기 회복 및 활성화 등에 기인되고 있다.

조사업체의 자동화 추진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58%로 가장 많았고, 기술부족 55%, 정보부족 47%, 전문인력부족 42%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자금부족에 있어서는 기업측면에서 볼때, 자동화투자에 대한 자금이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환기간 연장, 대출이율 저리화, 신용대출 확대 보증 원활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동조사를 바탕으로 저리(5%내외) 융자금인 외화포시 원화대출자금 추가조성 및 지속적인 운영, 자동화 전문기관의 확대 및 기능 활성화, 관세감면 대상기간 연장 등을 상공자원부 등에 건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4 Page 참조)

전자부품산업협의회

F BT 표준화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본회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전압브리드 저항 표준화협약과 분과위원회 업계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L ine Filter 표준화를 위해 지난 6월 3일 보암산업(주)에서 삼성전자(주) 등 수급업체 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Line Filter용 Core 표준화규격을 확정하였다.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자 기미디어산업협의회는 지난 6월 8일 (주)금성사 강서빌딩에서 새한미디어(주) 등 5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사업실적 및 예산 보고와 수출관련 정보교류를 하였다.